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5. 7.(수)12:00
(지 면) 2025. 5. 7.(수) 조간

K-디지털정부 전초기지 이집트에 개소, 에티오피아까지 협력사절단 파견

- 5월 6일부터 14일까지 에티오피아, 이집트에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 파견
- 이집트 카이로에 한-이집트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개소(5.12.)
- 모바일신분증 등 디지털정부 우수사례 공유로 현지 수요 맞춤형 협력 추진

- 행정안전부는 5월 6일(화)부터 14일(수)까지 ‘아프리카 범정부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(이하 사절단)’을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에 파견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사절단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우수사례를 아프리카 대륙 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(ODA) 중점협력국이자 지역 거점 국가인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에 공유하며 맞춤형 디지털정부 협력을 확대하고,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.
- 사절단(단장: 국제디지털협력과장)은 행정안전부, 외교부, 법제처, 관세청, 한국재정정보원, 한국사회보장정보원,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에서 총 18명으로 구성됐다.

<에티오피아 방문 5. 7. ~ 10.>

- 먼저, 사절단은 5월 8일 에티오피아 혁신기술부 차관과 면담을 통해 양국 간 디지털정부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한다.
- 이어서, 에티오피아 재무부(수원총괄기관) 고위급 면담으로 디지털정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.

- 5월 9일에는 ‘한-에티오피아 디지털정부 협력포럼’을 개최하여 한국의 △디지털정부 협력센터, △국가재정정보시스템(dBrain+), △사회보장시스템(행복이음 등)과 같은 행정 시스템을 소개하고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.
- 사절단은 포럼이 끝난 뒤 에티오피아 관계자들과 디지털정부 분야 양자 회담을 개최하여 국가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

<이집트 방문 5. 11. ~ 13.>

- 사절단은 에티오피아에 이어, 올해 한국과 수교 30주년을 맞은 이집트를 방문하여, 12일 양국 간 디지털정부 분야 협력의 상징인 ‘한-이집트 디지털 정부 협력센터*’ 개소식에 참석한다.
- * (운영기간) 2025-2027 / (장소) 이집트 카이로 통신정보기술부 내
- 개소식 전후로는 이집트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면담 등으로 협력센터 운영 관련 사항 및 양국 간 디지털정부 협력의제 등을 논의한다.
- 이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가진 한국형 디지털정부 모델의 확산과 이집트를 통한 중동·아프리카 해외진출 확대 전략 거점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.
-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는 센터가 설치된 협력국과 공동으로 분담해 3년간 운영(연장 가능)하는 현지 기관으로, 한국 디지털정부 전문가가 파견되어 공동협력과제 수행, 정책자문, 초청연수 등을 실시한다.
- 13일에는 통신정보기술부 고위급 및 주요 행정·공공기관이 참석하는 ‘한-이집트 디지털정부 협력 포럼’도 개최한다.
- 이 포럼에서는 한국 디지털정부 핵심과제와 성과를 공유하고, △국가법령정보시스템, △관세시스템(유니패스), △국가재정정보시스템(dBrain+),

△사회보장시스템(행복이음 등), △디지털 신분증(K-DID) 등의 발표 및 분야별 실무회담을 진행한다.

-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“이번 아프리카 협력사절단 파견과 한-이집트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출범은, 단순한 기술 전수를 넘어 나날이 변화하는 디지털전환 시대에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의 출발점”이라며,
- “협력센터를 교두보 삼아 이집트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를 포함한 중동·아프리카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, 우리의 디지털정부 기술과 운영 경험이 세계 속에서 더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행정안전부 국제디지털협력과	책임자	과 장	박병준 (044-205-2781)
		담당자	사무관	백경록 (044-205-2782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□ 추진배경

-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확대, 신규사업 발굴, 현지 네트워크 확장 및 국제위상 제고를 위한 개도국 대상 범부처 합동 사절단 운영
 - ※ '24년 태국(6월), 외교부 공동 조지아·아제르바이잔(9월), 외교부 공동 코스타리카·콜롬비아(10월)
- 신규사업 발굴, ODA 사업 확대가능성 검토 및 현지 기관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확대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및 협력 기반 강화
- 한-아프리카 정상회의('24.6.),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('23.2.) 등을 고려, 그간 디지털정부 협력이 많지 않았던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협력 모색 필요
 - ※ 한-아프리카 정상회의('24.6.) 공동선언문(8번)에도 디지털정부 협력 강화 내용 명시

□ 사절단 개요

- (출장기간) '25. 5. 6.(화) ~ 5. 14.(수) / 6박 9일
- (출장지역) △에티오피아(아디스아바바), △이집트(카이로)
- (참여기관) 행안부(단장: 국제디지털협력과장), 외교부, 법제처, 관세청, 재정정보원, 사회보장정보원, 디지털인증협회, NIA 등 디지털정부 관계기관
- (주요활동)
 - (개소식) 한-이집트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개소식(5.12.) 및 MOU 체결
 - (디지털정부 협력포럼) 디지털정부 총괄기관, 업무 분야별 소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디지털정부 추진 현황 및 주요 우수사례 공유
 - (고위급 양자면담) 신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양국 관계기관 전문가 회의
 - (기관 방문) 협력국 디지털정부 관련 기관, 공관·KOICA 등 방문·면담
 - ※ (에티오피아) 혁신기술부(디지털정부 총괄), 재무부(ODA 총괄)
 - (이집트) 통신정보기술부(디지털정부 총괄, 협력센터 설치 예정 기관), 국제협력부(ODA 총괄) 등

▶ 디지털정부 서비스·시스템, 디지털 ID·관세·지역정보화 시스템 등 우수사례 공유 및 네트워킹 확보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및 협력 저변 확대

참고2

디지털정부 협력센터 개요

□ 사업개요

- (정의) 협력국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협력국 정부와 공동으로 현지 사무소 운영, 디지털정부 관련 컨설팅, 시범사업, 공무원 역량개발 등을 지원
※ '25년, 8개국 운영(세르비아, 튀니지, 페루, 캄보디아, 코스타리카, 라오스, 온두라스, 이집트),
- (목적) ①협력국가 디지털정부 발전, ②유무상 공적개발원조(ODA) 관련 협력사업 발굴, ③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지원
- (설립절차) 국가 간 합의 → 예산확보 → MOU 체결 → 사업추진
- (운영방식) 우리나라는 협력사업비 지원(연 약 33만불, 3년 약 100만불), 협력국은 현물(사무공간집기 등) 제공, 운영 기간은 기본 3년으로 협력국 요청에 따라 연장 가능

□ 추진전략

- 협력센터를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거점으로 활용, 수출 기반 확대 추진
※ ODA 사업과 함께 현지정부 자체자금 사업, 국제기구 등 해외자금사업 등 발굴
- 국가 간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체계적 사업 기획 추진
※ △「디지털권리장전」 기여, △선제적 사업 기획, 우선순위 기준 및 재원 확보방안 등 제안

□ '25년 운영현황

- 세르비아, 페루, 이집트 등 8개국에 센터 운영 및 인니 디지털ID 사업 추진

협력국가	현지 협력기관	운영기간	비고
세르비아	행정자치부	'20.~'26.	총리실('20.~'23.)→ 행정자치부
튀니지	총리실	'20.~'25.	3년 연장('23~'25)
페루	총리실	'21.~'26.	3년 연장('24~'26)
캄보디아	우정통신부	'21.~'26.	3년 연장('24~'26)
라오스	기술통신부	'23.~'25.	'23년 신설
코스타리카	과학혁신기술통신부	'23.~'25.	'23년 신설
온두라스	성과관리실	'24.~'26.	'24년 신설
이집트	통신정보기술부	'25.~'27.	'25년 신설
인도네시아	행정개혁부	'24.~'25.	오픈소스 기반 디지털ID 구축

□ '26년 추진계획

- 총 12개 협력센터 운영 추진(신설 6, 연장 1, 종료 2)
※ '23. 9개국 → '24~'25. 8개국 → '26. 12개국 예정